

“대구시 자금운용 문제있다”

연간 1억원 이상 이자수입 손해...세입판단도 개선 필요

시의회 구자동 전문위원 '예결특위 보고서' “지난해 5개 사업비 76억 불용처리”

대구시가 주먹구구식 자금운용, 세입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대구시의회 구자동 운영전문위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구군의 자금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월별 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 손해를 보고 있다.

구 위원은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보고한 2005년도 대구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구시 구군의 월평균 집행잔액이 104억원이나 되며 이 돈은 금리 1%에 불과한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위원은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 불필요한 자금을 구군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이율이 3~4%인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예금의 경우도 10억원 이상, 3개월 미만 단기가 많은데 이를 10억원 이하 소액으로 분리해 장기예치하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진흥기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면서 우리은행과는 지난해 7월 초 45억원의 예치금을 3.8%이율로 계약했음에도, 같은 달 대구은행과는 17억1천300만원의 정기예금을 3.6%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사업으로 확정됐

던 대구시는 구마고속도로 성서IC~남대구IC 구간(20억원), 명곡택지~본리택지간 도로(20억원), 달성산업단지 우회도로(10억원) 등 5개 사업 76억원의 사업비가 세입부족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세입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데 따른 비효율적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위원은 “대구시가 자금과 기금에 대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용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익을 놓치고 있고, 세입판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